

안 떨어졌니?”래. 나중에 1,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, 김치에 대한 질문이 끊어지는 시기는 결혼하고 평균 7.2년 후더라고. 그전에는 어찌다 사 먹긴 하지만, 정기적으로 사지는 않아. 그러니까 그들도 타깃이 아니지.

그럼 대체 누가 김치를 사 먹을까? 조사해보니 40~45세 주부들이더라. 보렴, 그분들 남편은 보통 40~50세야. 사회에서 가장 바쁠 때지. 집에서 남편들 저녁밥 먹는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도 안 돼.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나이인데, 공부 뒷바라지하느라 죽겠거든. 모르긴 해도 주부의 일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시기 아닐까. 그런데 김치 담글 맛이 나겠니? 그냥 사 먹고 말지.

내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는지 알아? 여태까지 이런저런 시장조사를 많이 했는데, 타깃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거야. 대부분 막연하게 짐작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. 고객이 누군지 뻔할 것 같은 김치조차 정작 누가 사 먹는지 잘 모르더라니까.

문제는 또 있어. 그 40대 주부들만 김치를 사 먹어도 시장이 꽤 될 텐데, 당시 매출규모가 200억 원밖에 안 됐어. 내가 김치 회사에 또 물었지. 그들마저 왜 다들 안 살까요? 그랬더니 답이 세 가지. 남편 눈치 보여서, 비싸서 또는 맛이 없어서래.

이것도 나중에 조사해보니 맞는 답이 아니더라고. 가족 눈치 보여서 사지 않는 가구는 무척 적을뿐더러, 그나마 가장 눈치 보이는 게 누구였게? 딸이더라. 참고로 남편 눈치 보여서 안 산다는 응답은 1,000가구 중에 단 한 가구도 없었어.

가격이 비싸다고? 요새 김치값이 4~5kg에 3만 5,000~4만 5,000원 정도인데, 4인 가구라도 2주 이상 너끈히 먹어. 더 저렴한 김치도 많아. 재료비나 수고비 따지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, 직장이 있거나 어차피 사 먹어야 할 사람에게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야.

맛이 없다고? 김치라는 게 적어도 10~20포기 정도는 담가야 제맛이 나지, 한두 포기 갖고는 맛이 안 나. 그래서 사 먹는 게 외려 맛이 나을 때도 많아. 그럼에도 맛이 없어서라든지 가격이 비싸서 안 사 먹는다는 사람들은 ‘어차피’ 사지 않을 사람들이야.